

치사율 60%…2차 교통사고 더 위험 ▶7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광산구 아파트 전세가율 전국 최고 ▶8

kwangju.co.kr

판소리로 전남대에서 석사학위 받은 곤도 유리씨 ▶12

제19626호 1판 2013년 12월 2일 월요일 (음력 10월 30일)

전남 첫 단체장 주민소환투표…구례군 사전투표 현장 가보니

“실정 심판” “예산 낭비” 투표 참여-거부 호소전

서기동 구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 지난 29일 오전 10시30분께 구례읍 구례경찰서 앞길에선 주민소환운동 본부 측과 군수 측이 군민들을 상대로 각각 ‘투표 참여’와 ‘불참’을 호소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갓길에 나란히 선 두 대의 1t 화물차 확성기에선 “임기가 7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억지 주민소환으로 3억8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됐다”는 주민소환 투표 반대 측과 “보복인사는 물론 전시행정으로 협세를 낭비하고 부도덕한 사생활로 군민의 땅에 더럽혔다”는 찬성 측 입장이 뒤섞여 흘러나왔다.

같은 날 오전 11시께 구례경찰서에서 직선거리로 50m 떨어진 구례읍사무소. 사전 투표소가 마련된 이곳 주변엔 군수 측 인사들로 보이는 이들 5~6명이 모여 있었다.

주민소환운동본부 측은 “저기 점퍼를 입고 서 있는 이들이 서 군수 친·인척들인데, 거기에 서 있으면 누가 자유롭게 투표를 하겠느냐. 사실상 투표 방해 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투표소에 들어서자 구례선거관리위원회(3명)·군청직원(7명)·참

관인(3명) 등 13명이 자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투표하는 주민을 만나기는 힘들었다.

이어 찾아간 구례군청 분위기는 다소 가라앉아 있었다. 드러내놓고 말하는 직원은 없었지만 투표율을 대해선 꽤 관심을 보이는 눈치였다.

29·30일 투표율 3.07%

4일 공식투표 주목

“결과 승복 싸움 그만”

찢긴 민심 후유증 걱정

취재진이 “투표를 했느냐”라고 물자, 이 직원은 “투표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라며 말을 돌렸다. 일각에선 반대를 하더라도 투표는 해야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사전투표소가 마련된 곳은 모두 8개 읍·면사무소. 이곳에서 만난 주민들은 주민소환 투표 이후를 더 걱정했다. 양측간 간접의 끝이 더 깊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공식 투표는 오는 4일 구례군 내 19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서기동 구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사전투표가 실시된 지난 29일 구례읍 구례경찰서 앞길에 나란히 주차된 1t 화물차에서 양측이 찬·반의 당위성을 호소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구례=최현배기자 choi@

광주 고2 학업성취도 2년 연속 추락

2011년 국·영·수 전국 1위서 올 3~7위로 기초학력 미달 늘어…中 학력도 전국 10위

‘실력 광주’로 불리며 전국 1위를 거머쥐었던 광주 지역 고교 학력이 해가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내년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광주 지역 고교 2학년 학생들의 국어·영어·수학과목의 학업성취도(보통 학력 이상)가 2011년 전국 1위에서 지난해 2~7위로 올해 3~7위로 2년 연속 주저앉았다. 반면, 기초학력미달은 해마다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6면>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13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광주 지역 고교의 학업성취도는 지난 해에 이어 2년 연속 하락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이 전국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전체 학생 110만명을 대상으로 국·영·수 3과목을 ‘보통학력 이상’·‘기초학력’·‘기초학력 미달’ 등 3개 등급으로 분류한 것이다.

광주 고교 학생들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국어 89.7%로 전국 17개 시·도 중 3위를 기록했다. 영어는 90.4%로 6위, 수학은 90.1%로 7위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국어는 2위→3위로, 영어는 4위→6위로 1~2계단 내려앉았다. 수학은 7위→7위로 중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광주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국·영·수 모든 과목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 ‘실력 광주’를 입증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학력이 급추락, 최상위권에서 중위권으로 주저앉았다.

학력 추락은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 증가세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광주 고2 학생들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은 2011년 1.4%에서 지난해 1.5%, 올해 1.9%로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광역시 가운데 가장 심각했다.

국어의 경우 1.5%로 광역시 중 가

장 많았고, 수학은 2.8%로 인천과 함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영어도 1.5%로 인천(1.0%) 다음으로 기초미달 학생이 많았다.

중위권에 머물고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학력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광주 지역 중 3 학생들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국어 85%, 영어 75.4%, 수학 67.4%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3과목 모두 10위를 기록했다. 전남 지역 학력 수준은 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올라섰다.

고2 학생들의 보통학력 이상은 국어(86.3%)·영어(86%)·수학(86.9%) 모두 전국 11위로, 지난해 1~3 계단 상승했다. 중 3 학생들도 지난해 국·영·수 모두 전국 끝자리에서 올해 영어(70.2%)와 수학(61%)이 각각 13위, 14위로 올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작년 30일 제1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원우들이 캄보디아 캄퐁스푸주 광주 진료소 건축 현장에서 건물을 쓰일 벽돌 등을 나르며 공사에 힘을 보태고 있다. 뒤로 보이는 공사 중인 건물이 광주진료소. ▶관련기사 2면

/캄보디아 캄퐁스푸=최권일기자 cki@

J프로젝트 드디어 첫 삽 오는 13일 해남 산이면 구성지구 기공식

전남도 역점사업인 서남해안관광 레저도시(J프로젝트·솔라시도) 구성지구 기공식이 오는 13일 해당 부지인 해남군 산이면 일대(21.87㎢)에서 열린다.

이로써 삼포·삼호·구성지구로 나뉘 추진되는 J프로젝트는 계획 10여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됐다.

전남도는 1일 “최근 정부와 협의를 통해 오는 13일 오전 11시 구성지구

기공식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기공식에는 정홍원 국무총리, 국 회의원, 기업도시 관계자 등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축하공연과 홍보영상 상영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예초 전남도는 지난 4월 구성지구 기공식을 열 계획이었지만 정부의 무관심과 한반도 긴장 고조 등으로 부기한 연기했었다.

구성지구에는 오는 2025년까지 토

지매립과 진입도로 건설 등 도시기반 시설 조성과 함께 골프장 건설, 레저주택, 골프빌라, 시니어 빌리지를 조성하고 호텔 및 리조트, 통합의 병원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한편 부동지구는 사설상 사업이 중단됐고, 삼포지구는 신규 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삼호지구는 부지인 간척지의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 상태다.

/이광록기자 kroh@kwangju.co.kr

2014학년도 전기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과정(야간) 모집

- 모집분야: 행정학과 (공공행정전공, 지자행정전공)
- 모집인원: 00명 (광주반, 여수반)
- 전형방법: 면접고사 100%
- 원서접수: ④ 일반전형: 2013.12.02(월)~12.16(월)
- 2014년도 최고정책 및 관리자과정생 모집 모집기간: 2013.11.11 ~ 2014.02.28
- 문 의 : TEL 062-530-5196 FAX 062-530-2266
- 홈페이지 : <http://cnugpa.kr>



한국남부대학교
문화예술매거진
예상
12월호

11월 29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스 : 062-222-0195



특집

남도철길에 편 문화꽃 그리고 간이역 풍경

- 도시의 생생 문화 피워낸 푸른길을 걷다
- 송정역 100년, 역사를 안고 달린 호남선을 생각한다

기획

배고픈 예술, 탈출구는 없나?

- 생존과 싸우는 예술가들의 초상
- 시행 1주년 예술인복지법을 점검한다

송년 기획

해피엔딩을 꿈꾸는 당신에게 권합니다

자서전 쓰기, 베일리스트 만들기

칼럼 투어

한국 무용의 절대 강자, 광주 무용 막 뒤엔 눈물과 땀이 있었다

문화 현장

명작의 고향을 찾아서

황석영의 경길산 배경자, 화순 문주사 천불천탑 위에 새 세상의 꿈이 있었네

이사장은 '관상' 성공, 나눔으로 완성시킨 주피터 필름 대표 주필호의 영화 이야기

예향 초대식

화가 하철경

한국예총회장, 교육자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볼을 놓지 않는 창작의 열정



마주한은 책과 사람
“나에겐 문학이 필요했다”
소설가 이승우에게 듣는 성찰과 실존의 문학
이달의 아티스트

가수 김원중이 '달거리'에 담은 뜻
광주 지켜온 그의 음악 세계



정읍, 장성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에서 혁명가의 눈빛을 만나다

문화동행, 민편 클럽
정남진승마동호회
'슬로시티'에서 말타는 사람들